

Landscape and Depth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e opening of the exhibition titled Landscape and Depth at KICHE on Oct. 24. This exhibition, curated by the Chinese curator Xia Yanguo, features art works by 5 artists from different countries, Rudy Cremonini, Lucas Kaiser, Lee Dong Hyuk, Amba Sayal-Bennett, Shih Yung Chun.

The exhibition, based on the two concepts of landscape and depth, refers to Cezanne for the reflection of how reality and art are related, how artists avail themselves of art to reveal what is often neglected in life, as well as how art goes beyond duality so as to reach the depth.

Neither an imitation nor a representation, art plays the role of revealing the unseen, which task is always challenging. Even if all the artists work in the same way as Cezanne did, who captured “a piece of nature” through visual art, we still have to make it clear what the “captured” nature or reality is, as well as its depth,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how deep or shallow something is, because it is not to be reflected in a dualist framework.

Art, as landscape, is not a product by artists according to the wishes of instinct or good taste, and it is rather a sensation an artist gets.. In other words, it is, in Cezanne’s words, “the landscape thinks itself in me”. Landscape thinks itself in the artist, who therefore becomes the consciousness of landscape. Put it differently, an artist has to pursue, as hard as possible, the reality hidden in everyday life. Cezanne was not confident enough to reach for the kind of art he yearned for, but it is right in such lack of confidence that depth can be reached. Merleau-Ponty attributed Cezanne’s confusion, to the fact that he aimed for reality while denying himself the means to attain it. Cezanne did not seek

for an inferable result but new possibilities which could not be “n+1” but “n-1”, that is, only when we abandon the subjective, the known, the presupposed, and the commonsense can we see the other side of life, build real landscape, and realize its depth per se.

To understand reality, we have to refrain ourselves from referring to theories; otherwise the reality loses its freshness and becomes lopsided. We should aim for the full reality despite its transience. Reality in this sense is strangeness. Art, accordingly, might be compared to a tempest which brings terror to the mind that tends to reason and to the reality that awaits to be accounted for, and along with the terror come the real differences that cause surprise and discomfort to everyday life, politics, history and ideology. This kind of landscape of depth does not expect to strike a chord with the viewers, nor does it need common sense to stand on its own. It does not belong to artists as they only raise the question. They can express their own view about the existing standards and norms by means of art because they approach life or the depth of life; otherwise they have no idea where the problems lie. As Cezanne pointed out, it was a great challenge to find the feeling as it was hidden in the origin of everything in the world. The depth is dynamic rather than static, so there is always a distance between the artist and the depth. Trapped in time and chaos, the world seems to be torn down by a disaster, but artists are sensible enough to feel the breath of life and recreate in their own way the real sense of life. It is a process in which an artist, like a translator, conveys the feeling with art as a medium. In this sense the reality takes shape with the help of artists.

Depth in this case is more than a multiple perspective; more precisely it is a complex relation that breeds new thinking and earns a stage like a life entity. Each and every art work of depth is, as it were, a drama where life and danger coexist. It builds a new

reality, reality to arrive. Such reality, running off track, is in constant escape from the center, because only in elsewhere can we find the depth of reality.

The five artists featured at this exhibition, at different depth, respond to issues on different levels in our social reality. Major or minor, these issues matter when we face them and free ourselves of prejudice and restart thinking. In Lucas' works, from daily life and old fairy tales generate distorted and uncanny surreal landscape, indefinable new space; the strangeness in Rudy's works shows how reality reveals itself while vanishing gradually, with images popping into our view like instinct hovering over the paintings; each of Amba's works constitutes a self-contained entity of multiplicity with the resistance in terms of language in a seemingly quasi-mechanical order; Shih Yung Chun's works build stubborn realistic landscape in which quotidian items regain freedom by the loss of their function, so a new order is born in everyday relation when material returns to itself and man is no longer attached to the so-called humanness. In Lee Dong Hyuk's recent works, he tries to deconstruct the existing textual language, and through his calm paintings, he takes us into the scene beyond the language, where multiple time and space appear because of the different perspectives. From an epistemological point of view, it is only by entering that "pre-reality" that we can open the door to the real, where every part has its own significance, and in order to do so, we must first look at the behavior and manner of faith with a skeptical eye.

What the five artists have in common, if there is, is the fact that all their works are assemblage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each landscape is close enough to the depth we discussed above. These artists all share with us new ideas about the existing known world and, instead of clarifying, they add to complexity of the world.

Living in reality, in a web of history, politics, ideology and quotidian relations of all sorts, we have to act like an artist if we want to take a new step: to uncover the difference even if it means enormous difficulties. “This is my road, where is yours?” Zarathustra replied when asked where the road was. Instead of giving an answer, he put the question back to the questioner. Artists, in the same way, are the owner of these landscapes and depths, so as viewers, where are our landscapes and depths then?

The exhibition will last until November.

풍경과 깊이

갤러리 기체는 2023년 10월 24일 전시 《풍경과 깊이》를 선보인다. 중국 큐레이터 시아옌궈가 기획한 이 전시는 각기 다른 국적을 지닌 다섯 명의 작가 루디 크레모니니 (이탈리아), 루카스 카이저 (독일), 이동혁 (한국), 암바 사얌-베넷 (영국), 시용춘 (대만)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풍경’과 ‘깊이’라는 두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이 전시는 세간의 예술사상을 통해 현실과 예술의 관계를 재고하고, 쉽게 간과되는 현실을 예술로써 가시화하는 작가의 작업 과정을 분석하며, 이분법적 대응을 벗어나 일종의 깊이를 논하는 예술에 대해 생각하기를 제안한다.

예술은 모방이나 재현이 아니라 간과되는 무언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실천함에는 늘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세잔이 그러했듯이 모든 작가가 시각적 방식으로 ‘자연의 한 조각(a piece of nature)’을 포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작가에 의해 포착된 자연 혹은 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깊이는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이는 무엇보다도 이분법적 논리로 사고하지 않는 것으로, 깊거나 얇은 정도를 구별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풍경으로서의 작품은 작가의 본능이나 취향에 따라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세잔의 말에 따르면, 풍경으로부터 작가가 받아들인 일종의 감각은 “풍경이 작가 안에서 사고한” 결과이다. 풍경이 작가 안에서 사고하고, 작가가 풍경의 의식이 되는 것. 달리 말하자면, 작가는 일상의 밑바닥에 있는 더욱 실재적인 무언가에 가까워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세잔은 자신이 갈망하는 예술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했으나, 오히려 이러한 결여 속에서 깊이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철학자 메를로퐁티는 세잔이 늘 자신에게 의심을 거두지 못한 이유에 대해, 그가 실재를 목표로 하면서도 실재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부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잔이 찾아 헤매던 것은 추론 가능한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었다. ‘n+1’이 아닌 ‘n-1’로 표현되는 새로운 가능성은 주관적인 것, 알려진 것, 전제된 것, 상식적인 것을 힘껏 내동댕이칠 때 비로소 드러난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통해 삶의 이면을 볼 수 있고, 진정한 풍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본연의 깊이를 실현하게 된다.

현실을 인식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론의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 이론의 도움으로 인식한 현실은 일차원적이거나 일방적일 뿐이며, 살아 있는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아주 잠시만 허락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한 현실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완전한 현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낯선 까닭에, 이를 드러내는 예술은 마치 거친 비바람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예술은 이성

을 추구하는 마음과 해석되기를 기다리는 현실에 모질도록 진정한 차이성을 가져다주었으며, 일상생활, 현실 정치, 역사, 사상 등에 걸친 여러 영역에 놀라움과 불편함을 일으켰다. 이렇게 깊이를 갖춘 풍경은 구태여 관객과의 공감의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게다가 상식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성립되며, 작가에 속하지도 않는다. 감각은 만물의 근원에 숨겨져 있어 참으로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세잔은 말했다. 말하자면 작가는 단지 질문자일 뿐이지만, 그들이 예술로써 기존의 기준과 규범에 대한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현실이나 삶의 깊이에 바짝 다가섰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깊이는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기 때문에 작가와 깊이 사이에는 항상 거리가 존재한다. 시간과 혼돈에 갇혀 붕괴하는 듯한 세상 속에서, 작가는 생명의 숨결에 다가가려 애쓰고, 그 끝에 생생한 현실의 감각을 자신의 방식으로 재창조 해낸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감각을 번역하는 번역가에 더 가깝고, 현실은 그런 작가에 의해 형상을 얻게 된다.

이 전시에서 말하는 깊이는 다원적 관점보다는 복잡한 관계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 관계 사이에는 마치 생명체가 풍경 속에서 무대를 얻는 것과 같은 새로운 사고가 자리해서, 깊이를 갖춘 모든 작품은 그 자체로 생명과 위험이 공존하는 한 편의 희극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깊이는 새로운 현실, 곧 다가올 현실을 구축해 낸다. 그리고 깊이는 언제나 중심을 벗어난 길 위를 달려가고, 중심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달리는데, 그것은 우리가 찾으려는 현실의 깊이가 중심이 아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다섯 명의 작가는 각자의 풍경과 깊이를 통해 사회적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룬다. 여기서 관건은 그들이 다루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는 방식과 편견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새로운 생각을 재가동하는 방식에 있다. 예를 들어, 루카스 카이저의 작품에서 작가는 일상과 옛날 동화의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다시 읊기는 방식으로 왜곡되고 기이한 초현실적 경관을 만들었는데, 이 경관들은 정의할 수 없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낸다. 또, 루디 크레모니니의 작품에서 풍겨오는 낯선 현실이 스스로 '물러남'을 통해 드러남을 알게 해준다. 덮치듯 달려드는 그의 이미지는 화면 위에 떠 있는 직관에 가깝다. 암바 사얌-베넛의 작품은 합리적이고 기계적인 질서 안에서 언어에 대한 저항을 구축하며, 각각의 작품은 제각기 자립적인 다원체를 이룬다. 시용춘의 작품에는 집요한 현실적 풍경이 담겨 있다. 그 속에서 일상의 사물은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자유를 되찾고, 물질은 자신에게 돌아가며, 인간은 인간이 아닌 것을 생성하면서 일상적 관계 사이에는 새로운 질서가 생겨난다. 이동혁의 최근 작품에서 작가는 기존의 텍스트 언어를 해체하는 시도를 한다. 그의 차분한 회화는 불필요한 시각으로 인해 다중적인 시공간이 등장하는 언어 너머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끈다. 인식론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현실 전의 현실'에 진입해야만 모든 부분이 고유의 의미를 띠는 진실의 문을 열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의적 시선으로 믿음의 행위와 방식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 다섯 작가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그들의 작품은 저마다 회집체(asmsemblage)이며, 그 속에 담긴 각각의 풍경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 전시가 다루는 깊이에 충분히 근접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작품을 통해 기존에 알려진 사건과 물질을 뜯어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시각 안에서 이 세상은 한층 명확해지기보다 오히려 더욱 복잡해졌다.

우리는 모두 현실을 살아간다. 역사, 정치, 이데올로기와 온갖 일상적 관계가 얽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으려면, 많은 작가가 그러하듯이 설령 수많은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익숙함의 배후에 숨겨진 차이성을 먼저 발견해야만 한다. 길이 어디에 있냐는 질문을 받은 차라투스트라는 “여기는 나의 길인데, 당신의 길은 어디인가?”라며 또 다른 질문으로 답했다. 같은 논리로, 작품이 드러내는 풍경과 깊이의 소유자가 작가라면, 관객으로서 우리의 풍경과 깊이는 또 어디에 있을까?

이 전시는 11월 30일까지 계속된다.